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 조성

### 익산시, 영등·어양동 일대 국가산단에 추진 산단공과 함께 혁신 인프라 강화 일자리 창출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영등동·어양동 일대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젊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도에 조성되어 단지 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이나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원광대, 전

북대 익산캠퍼스 등 여러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청년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점을 살려 정부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 방안 발표에 빠르게 대응한 결과 지난해 6월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귀금속단지 현대화 사업, 정주여건 개선,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업종 고도화를 위한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건립된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및 컨벤션호텔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산업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센트럴파크 복합개발 사업과 더불어 산업시설과 기숙사 및 근린생활시설이 집적화된 지식산업 융복합센터가 올해 하반기 착공될 예정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최상의 근로자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

다.

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 정비, 노상 주차장,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재생사업과 스마트 가로 등·주차 시스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스마트화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정현율 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가시적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혁신인프라를 강화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젊고 건강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조용주 기자

##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시행사항 집중 점검

### 전기차·공기청정기 보급

군산시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각종 대책 마련과 관련기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자 군산교육청의 31개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아파트 공사장을 직접 방문, 이행사항점검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번호 글자기가 흡수인 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 하고 저감 조치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2억원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총 117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DPF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부착,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추진사업 이외에도 군산시는 홍보전광판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고지과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3개소에 늘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를 신규 설치해 연계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며 약 60억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에 대해 교체 및 설치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환경기술자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관내 경로당 50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6일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성 붕따우(Vung Tau)시와 우호도시 의향서를 체결했다.

## 베트남과 국제교류 '출발'

### 군산시, 붕따우시와 우호도시 의향서 체결

군산시가 최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유망신흥국가원과 동시에 박항서 감독으로 대변되는 베트남과 국제교류를 시작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6일 베트남 바리아 붕따우성 붕따우(Vung Tau)시와 우호도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향서 체결식은 강임준 군산시장, 응우옌 랍 붕따우시 인민위원장, 레 티 팜 띨엔 바리아 붕따우성 외무국장, 양철수 바리아 붕따우성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체결에 앞서 면담을 통해 강임준 시장과 응우옌 랍 인민위원장은 각 도시의 대표축제 및 행사와 예술제에 상호 방문 및 참여, 교환 학생 등 인적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

었다.

이번 의향서 체결내용은 경제, 관광,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교류를 통한 양 도시의 공동 번영과 관련된 우호협력력을 담고 있다.

시는 군산시 방문을 추진한 바리아 붕따우 한인회의 가교 역할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바리아 붕따우 한인회를 통해 행정기관과 민간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산시는 그동안 5개국 18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했으며 이번 붕따우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글로벌 서포터즈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군산시가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교류 행사 등으로 통역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4기 외국어통역봉사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통역봉사자들은 2년 동안 군산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 축제, 국제행사를 비롯해 기관·단체와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통역봉사 모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3월 10일까지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시 기획예산과(☎454-2624)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아토피·천식 예방 협력 강화

### 익산시보건소·원광대병원 협약 체결

최근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검증된 예방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난 5일 원광대학교병원, 온누리아토피병원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아토피 없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항원알레르기 반응검사, 아토피·천식 예방을 위한 전문지식·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민의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지역단위 통계분석 및 자문, 기타 상호 제반사항 등의 협력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항원알레르기 반응검사에 대한 검사기관

이 선정돼 관내 알레르기 유증상자 및 질환자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조기진단 및 예방이 가능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천식 질환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약 체결을 통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가능해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자가관리수칙, 생활환경관리 교육 등 알레르기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 481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조용주 기자

## 익산시,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 12일까지 574개소 대상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학을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범위) 내 주변의 식품조리·판매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슈퍼마켓, 문방구, 편의점, 학교 매점 등) 574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 식재료 및 식기류 세척·

소독 시간 적정 여부, 무허가 무표시 식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주변의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정 조치하고, 중요 위반 사항은 재점검 후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문혁 위생과장은 "신학을 맞아 학교 급식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전 예방과 관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 익산시, '희망하우스' 농촌빈집재생사업 신청자 모집

익산시는 농촌지역의 노후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거취약계층과 지역활동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2019년 희망하우스 농촌빈집재생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주택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빈집 및 공기로 리모델링 후 입주 가능한 수준

의 단독주택이어야 하며, 3~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호당 2천만원의 리모델링비(자부담 50%이상)가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빈집소유자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주택과(☎859-448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조용주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